

에이피알, '유니콘기업' 상장절차 개시… 내년 코스피 입성

올 상반기 영업이익 480억 기록
뷰티 디바이스 누적판매 100만대
입문템 '부스터힐러' 美서 인기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상장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청구서 승인 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요예측, 청약 등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초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에이지알(AGE-R) 5종. /에이피알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이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1년 매출액 2591억원, 영업이익 142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3977억원, 영업이익 392억원으로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480억원 가량이다.

실적에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에이피알의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3월 7000억원 대프리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6월 CJ온스타일로부터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유니콘 기업이 됐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 같은 에이피알 성장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자랑하는 뷰티 디바이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마EMS샷 ▲유쎄라답샷 ▲ATS에어샷 ▲부스터힐러 ▲아이샷 ▲바디샷 등 총 6종의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는 론칭 약 2년여 만에 국내·외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에이피알이 지난 2022년 7월에 처음 선보인 '부스터힐러'는 뷰티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입문템'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8월 '부스터힐러'가 에이피알의 최고 인기 제품으로 등극한 가운데 새로운 역대 최대 미국 월간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오는 10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시설 및 제품 리스팅을 위한 포탈 사이트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이피알은 미국 정부의 성분 조사나 감사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포함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했다.

에이피알은 "국내 상당수 뷰티 기업

들이 제조 등에 있어 OEM·ODM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기획·유통사인) 에이피알 또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 OEM·ODM사와 공동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에이피알이 미국에 수출 중인 화장품 제품에서 관련 규제 때문에 성분을 교체하거나, 제품 수출을 포기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를 비롯해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 디바이오 등의 자체 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에이피알은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뷰티 업계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성공리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나라셀라, CEO·리더 위한 와인클래스 론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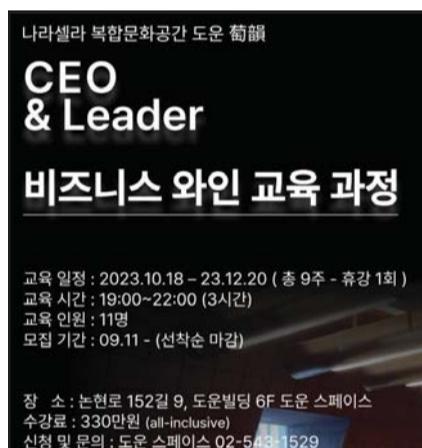
인문학·테이블 매너 등 내용 구성
매회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가능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는 와인복합문화공간 도운에 서 'CEO & 리더 비즈니스 와인'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CEO & 리더 비즈니스 와인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CEO를 비롯한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와인 교육 클래스로 기본적인 와인 지식부터 인문학은 물론, 비즈니스 및 테이블 매너 등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여주고 실전에서 널리 사용될 수 실용적인 내용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매회 주제에 맞는 고급 케이터링이 제공되어 강의 후 자연스럽게 와인과 페어링한 음식을 즐기면서 비즈니스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강의는 와인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검증된 강사진이 진행한다. 강사진으로는 김상미(국제 와인 전문가 인증 WSET Level 4 Diploma, 현재 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 최정우(최정우와인연구소 소장 광명시청 주무관 및 광명동굴 와인연구소장), 김민주(신세계 베건디 & 헤드소믈리에 2019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우승자)가 각기 다른 주제를 맡아 진행한다.

10월 18일 웨컴 파티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KORII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축배를 들 예정이다. 이후 8 주간의 교육은 프라이빗 룸 '도운 스페이스'에서 11명을 위한 소규모 클래스로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으로 신청 및 문의는 도운 인스타그램 DM 또는 도운 스페이스로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크 보온병 500ml', '더종로 시온 스토어 머그 414ml', '아웃도어 스플로크세트', '스타벅스 1호점 랩탑 파우치' 등 다양한 MD 상품으로 구성됐다.

일부 상품은 스타벅스 용인에버랜드 점, 스타벅스 1호점인 이대R점, 더종로 R점 등 일부 매장에서만 특화 상품으로 판매되는 품목도 포함되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MD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스타벅스 추석맞이 서프라이즈 이벤트 진행 매장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광주, 충청 등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깜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매장 방문고객에 선물 증정

600개 거점 매장서 이벤트 진행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선물 증정을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다.

스타벅스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 중 선정된 600개의 거점 매장에서 제조 음료 포함 3만5000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MD 상품 1종을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600개의 스타벅스 거점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보온병, 텁블러, 머그, 키링 등 100여 종의 MD 상품을 만날 수 있으며, 매장을 방문해 제조 음료 및 푸드 등을 주문하면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MD상품은 'JNL 어뮤즈먼트

현대그린푸드, '비노에이치 와인 세트' 선봬

추석 맞아 전국 16개 점포서 판매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 와인 매장에서 '비노에이치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와인 수입·유통 전문사인 비노에이치(Vino.H)가 국내 단독으로 유통 중인 와인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선물상품은 '노당 페레 앤 피스 피노누이'와 '노당 페레 앤 피스 샤르도네'로 구성된 '프랑스 부르고뉴 세트(8만원)'다. 노당 페레 앤 피스는 프랑스 대표 와인 산지인 부르고뉴에서도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꼬통 샤를마뉴 그랑크뤼'·'꼬통 그랑크뤼'·'사비니 프리미에 크뤼' 등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한다. 또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재배 방식과 수작업 수확을 고집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슬로베니아 이스트리아 반도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구성된 '슬로베니아 기획 세트(20만원)'도 선보인다.

이 세트는 1200병만 한정 생산돼 국내에는 비노에이치가 단독으로 200 병을 들여온 '블라질 소비뇽 플레이시보 2015'와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 절차로 알려진 '데메터(demeter)' 인증을 받은 '코레니카 앤 모스콘 코르틴카 2011'로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승호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이 서울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바이오헬스케어 인재 양성

산업인력공, 신규지원 과제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맞춤 훈련과정 도입 ▲직군별 현장 적용 맞춤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승호 이화의료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첨단 훈련과정을 도입하겠다"며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